

21세기를 향한 음악 및 음악교육 정책

이 홍 수*

차 례

I. 논의의 관점

II. 현실 진단

III. 정책 수립의 방향

IV. 맺는 말

I. 논의의 관점

어느 분야, 어떤 집단이든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는 그에 합당한 장, 단기별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민대중이 흥미한 사회음악 문화 속에서 정서적 혼돈을 겪으며 살 수 밖에 없는 이 때에,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한 음악 및 음악교육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뜻 있는 일이라 하겠다.

사회학자인 이만갑 교수(전 서울대)는 어느 대담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미(美)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민족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입니다. 21세기에는 아마 부(富)와 권력보다도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러한 예견과 관련하여, 우리는 “21세기에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이 균형잡힌 음악문화,

* 한국교원대학교 예술계열 부교수

1) 동아일보 대담 1991. 3. 3 p. 3.

진정한 의미의 한국 음악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음악인들을 향해 타당하고 충실하게 정책을 수립, 이행이라고 요구하는 시민 대중의 거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어떤 나라에 재력있는 극소수만이 부를 즐기는 반면에 대다수 국민은 궁핍한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정부가 오랫동안 적절한 경제정책을 수립, 이행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그것이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뜻한다. 그러면 우리 음악문화의 자화상은 어떠한가?

1) 전문 음악인과 소수의 애호가들만이 예술성 음악을 향유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일반 대중은 오락성 음악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회

2) “옛날의 우리의 음악”과 “고금(古今)의 외국 음악”은 많아도, “오늘의 우리의 음악”이 희귀한 사회

3) 예능교육과 예술행위는 많아도 예술교육과 예술가의 육성, 보호책이 빈곤한 사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는 미래를 향한 합당하고도 주도 면밀한 음악 및 음악교육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21세기 사회의 음악문화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사회의 음악문화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러한 문제들과 관련되는 정책방향에 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현실 진단과 정책방향의 논의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그 첫째는 가치 지향적이고 균형잡힌 음악문화의 수립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오늘의 한국 음악”중심의 민족음악 창달(暢達)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음악교육과 예술 음악인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것이다.

II. 현실 진단

1. 음악문화의 양상

사회적 음악문화는 오락성 음악문화와 효용성 음악문화, 예술성 음악문화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오락성 음악은 무겁고 어두운 마음을 풀고 달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황폐하게 만든다. 그것이 순기능을 할 때 사람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고 사회에 활력소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역기능을 할 때에는 개인의 심성을 황폐하게 하고 사회에 향락풍토를 싹트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효용성 음악은 일상의 흐름이나 의식 절

차를 격 높고 세련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융집시킨다.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생활, 종교의식, 국가행사 등에서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될 때 사랑의 마음과 질서의식, 협동심을 일으키며 외경심과 애국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예술성 음악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제공하며, 선함과 아름다움, 진실과 정의를 만나게 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준다.

우리 사회에는 이 세 종류의 음악이 모두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기 성향에 따라 자신의 음악 문화권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음악과 음악 문화권의 존재 양상이다. 그러한 음악들이 각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 어느 정도로 균형있게 수용되고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음악문화의 질과 건강 상태를 재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에, 저녁이면 가족이 모여 앉아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를 즐기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예술음악 연주회장은 몇 퍼센트나 유료표의 주인을 맞이하는가? 또 경기장에서 응원할 때 학생이나 성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것인가? 그런가 하면,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 콘서트”의 상황은 어떠한고, 골목의 노래방들은 밤마다 어떤 상태인가?

그렇더라도 개개인이 만나는 음악 문화권이 다양하다면 그런대로 사회 음악문화는 건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각 개인과 집단 모두가 각기 한쪽에만 매달려 있다. 오락성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만 쫓고, 예술성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 자기 악기 밖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의 음악생활이나 사회 음악문화에는 관심이 없다. 어떤 예술가들은 엘리트즘(elitism)에 젖어 스스로를 진열장 속에 가두고, 대중과 멀리 떨어진 채,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대견해 한다. 음악문화를 선도해야 할 사람들은 문화의 유동적 속성을 이유로 들면서 제도적, 법적 조치에 앞장 서기를 꺼리며, 재정적 지원은 문예진흥기금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다. 또한 음반제작이나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추구되어야 할 가치보다는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얽매어 있다. 오락성 음악에 심하게 편향되어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음악가, 방송인, 정치가들 중의 어느 집단도 사회 음악문화 전반의 질과 양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문화를 창의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은 드물고, 뒤에서 그 추이를 따라 가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사람만 많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개인과 사회 전반이 음악문화를 균형있게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며, 사회 음악문화의 질적 수준이 낮고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물질적인 생활수준이 높더라도 사회 문화의 질적수준이 낮고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사회를 선진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문화의 수준이 낮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점점 더 낮아

지고 악화된다.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것이 문화이다. 문화는 본질상, 유기체적 진화를 통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축적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없는 한 반전(反轉)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음악문화는 위기에 이르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음악인으로서, 또는 음악교육자로서, 음악 문화를 선도하고 지원해야 할 사람으로서, 음반 제작이나 방송을 담당하는 전달자로서, 우리가 저마다 21세기를 향해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는 각 분야에서 저마다의 소임을 인식하고, 그 이행 여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한편,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횡적 연결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함으로써 미래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2 한국 음악의 정체성

우리는 지금 혼미한 음악문화 속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 사이에서 혼돈과 당혹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 그것은 서양 음악이 유입된지 1백년이 넘기까지 우리 음악계가 그것을 정복하지도, 외면하지도, 이용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 백년동안 아니면 광복 후 40년 동안만이라도 한국의 음악과 외국의 음악을 구별하고, “오늘의 한국의 음악”²⁾을 가꾸어 왔어야 했다. 외국의 음악은 한국 음악의 발전을 도울 비료는 될 수 있을지라도 뿌리 그 자체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어야 했으며, 타민족에 의해 단절되었던 문화 축적의 여정을 재빨리 이어놓고 그 뿌리를 찾아 정통 음악의 맥을 이어 발전시키는 일에 전념했어야 했던 것이다.

한국 음악의 뿌리는 한국인의 삶이요, 한국인 특유의 음악적 정서이다. 그런데 그 뿌리가 이 땅의 풀잎과 나뭇잎이 썩어 된 거름을 제공받지 못한 채 서양에서 수입된 비료에 덮여서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그런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전통 음악을 보존,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는 전문 음악인과 학자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음악이 우리 사회음악의 주된 자리로 돌아오는 데에는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들이 많이 있다.

평범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외국어는 외국어일 수 밖에 없듯이, 한국 음악이 우리의 모국음악이고 서양 음악은 외국 음악일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인에게 외국어의 관용어를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듯이 서양 음악을 완벽하게 향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2)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0, p. 130.

을 대부분의 음악인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첫째 장벽이다. 그것이 억지스러운 음악회를 열게 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편제의 음악 학교를 세우게 한다.

어린이들이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일상의 관용어를 먼저 배우듯이, 유치원과 국민학교 초기에는 한국 음악의 관용적 표현법으로 만들어진 노래를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런 노래를 배우는 어린이는 한국 음악의 기둥과 관용적 표현법을 쉽게 익히며, 그것을 평생 잊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0대에 외국으로 나가서 오래 살다가 돌아와도 한국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명백한 원리가 교육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둘째 장벽이다.

한국의 옛 음악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오늘날에도 전통으로 살아있게 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옛 음악의 관용적 표현법을 찾아 정리하고 한국 음악을 한국 음악답게 하는 요소와 원리를 밝혀내어 오늘날의 한국인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옛 음악을 보존, 연주, 전달하는 데에 투입하는 정도에 못지 않게 “오늘의 한국의 음악”을 창작, 연주, 전달하는 데에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야 하며, 그러한 음악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 그런 인력을 양성하고 재정을 마련하는 일을 소홀히 하며, 그러한 음악을 저급한 음악으로 여기고 그러한 노력을 과소 평가하는 분위기가 그 셋째 장벽이다.

3. 음악교육, 예술 음악인 육성 및 보호

학교의 음악교육은 일반 음악교육과 전문 음악교육으로 나누어 진다. 일반 음악교육은 유치원의 음악활동과 초, 중등학교의 음악교과, 대학의 교양음악 강좌 등을 뜻하며, 음악의 심미적 체험과 기초적인 음악적 능력의 향상, 풍부한 음악적 심성의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전문 음악교육은 음악학교와 예술학교, 음악대학의 음악교육을 뜻하며 음악 전문인으로서의 기초를 닦고 예술적 기량을 최대한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우리의 학교에서 노래가 가르쳐지기 시작된 이래 백수년(1887년-) 동안, 아니면 한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음악교과가 시작된 이래 약 40년(1955년-) 동안만이라도 일반 학교와 전문 음악교육기관들이 그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오늘의 음악 문화의 수준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을까?

20세기 전반에 Zoltan Kodaly, Carl Orff, Emile Jaques-Dalcroze 등의 음악교육가들은 음악교육의 이념과 선구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하였고, 근래에는 세계의 많은 음악교육자들이 음악교육을 역사적, 철학적, 미학적, 심리학적 시각에서 탐구함으로써 음악교육의 본질과 그에 합당한 지향점을

찾아내는 데에 성공했다. 그 본질과 지향점은 “음악 예술의 심미적 체험”³⁾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된다. 그러한 개념은 우리에게 소개된지 오래지만, 대부분의 교육자들에게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여질 뿐 교육의 장(場)에서 실체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20세기 말 현재, 우리 학교들의 음악교육이 아직도 음악행위를 익숙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Michael Mark는 “음악교육에 있어서 현대라는 의미의 획은 교사들이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반응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때에 그어진다.”⁴⁾고 말한다. 노래나 기악 연주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할 줄 알게 되면, 그것도 지도자 자신에게 만족스러우면 그것으로 학습이 완료되었다고 믿는 오늘의 음악교육을 “현대의 음악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 음악교육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자들은 교실의 음악수업을,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가운데 작품의 예술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창출하게 함으로써 소박하게나마 “내면에서 예술을 체험하는 과정”이 되도록 교육자 자신의 의식과 지도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전문 음악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내면적 예술 체험”위에 “종합적인 예술성과 고도의 기능적 연마”를 추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전문 음악교육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신경욱(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은 최근 “시사저널”에 발표한 문화 서평에서 예술 영재들의 외국 유출 현상을 우려하면서 영재교육제도의 수립과 음악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어느 나라에서든 예술가의 육성은 중요한 일이며, 그것은 사회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예술 영재교육은 이제 겨우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 와 있을 뿐이며, 기존의 예술학교 교육조차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도록 위협받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똑같은 입시체제 때문에 특수목적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는 신경욱의 말 속에는 예술교육의 암울한 현실이 함축되어 있다. 정부와 사회가 예술고등학교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설립을 인가했다면, 그에 상응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그 학교들이 설립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술고등학교가 대학 입학고사라는 제도적 장벽에 막혀서 예술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기능 연마의 적정시기를 잃는다면, 예술가의 육성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음악대학의 교육 성과와 사회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음악대학 졸업자들이 예술가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졸업하는지, 사회가 그들 대부분을 음악가로

3)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해설(Ⅱ), 서울: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3, p. 101.

4) Michael Mark,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이홍수의 공역,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2, p. 23.

수용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음악 인재를 골고루 양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음악대학의 교육이 음악 인력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 음악 전반의 질과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학의 교육은 끊임없이 검토,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음악과 대학교육”을 주제로 열렸던 심포지엄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음악대학들은 많은 졸업자를 내지만, 장래에 음악가로 크게 활약하기를 원하는 졸업자는 다시 외국에 유학하는 것이 정해진 길인양 되어 있다. 이런 사례들은 졸업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음악대학 졸업자에게 제공할 무대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대 밖의 음악 관련 전문 분야에서 일할 인력은 배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음악대학이 실연 음악가와 다양한 분야의 음악 전문 인력을 균형있게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음악대학들은 구조적, 질적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음악 예술가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은 정부 당국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예술은 한낱 사치스런 놀이가 아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연마를 통해 준비한 자신의 예술세계를 그 시대와 사회에 바치는 치열하고도 엄숙한 삶이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르게 심는 일과 예술가들의 활동, 명예, 생계를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곧 사회 문화, 그 자체를 보호, 육성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향 각지에서는 크고 작은 음악회들이 열리고 있지만, 음악가들은 사회의 보호와 지원에 감사했던 경험보다는 누군가의 간섭과 통제에 노여워 했던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음악가들은 공연장 문제와 재정 문제에서부터 사소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는 한다. 끊임없는 고뇌와 자기 연마로 예술적 성숙을 도모해야 할 사람들이 예술 외적인 일이나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해 소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더욱이 외국의 음악가들에게는 무대가 널리 열려 있고 수입도 보장되지만, 우리 음악가들에게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며, 많은 경우 다른 일을 통해 저축했던 통장을 비워서 발표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음악인 개인만의 불행이 아니다. 이제 중앙정부 및 지방행정 당국과 각 지역사회 조직들은 우리의 음악가 개개인과 단체들로 하여금 음악활동에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과 음악 전문지, 신문, 잡지들도 음악가들의 예술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매체, 참여자, 비평가, 전달자로서 사회 음악 문화의 방향과 역동성을 좌우해 왔다. 그러나, 예술활동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이

제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들은 예술가들과 동일한 성격의 사회적 소임을 자각함으로써 새로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III. 정책수립의 방향

문화는 선(善)과 미(美), 진실, 정의에 관련된 사고와 행위의 양상이다. 그것은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과 인간을 교화하는 기능을 가지며,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21세기의 음악 문화는 현대의 음악문화가 과거의 음악문화 위에 축적된 것과 같이 현대 음악문화를 바탕으로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축적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음악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대해 책임을 지니며, 음악인들이 창출해야 할 음악적 가치는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특수성의 근거 위에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음악인들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로 하여금 가치 지향적이고 균형잡힌 음악문화, 진정한 의미의 한국 음악문화를 향유하게 할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금부터 그에 필요한 장, 단기별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1. 가치 지향적이고 균형잡힌 음악문화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음악 행위는 사회성을 띠며, 그 사회성은 음악 행위자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그래서 음악 문화 주체자들은 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포착하고 그에 부응해야 한다. 사회의 요구는 명백하다. “음악 문화는 풍성하되 가치 지향적이어야 하고, 음악 문화권은 다양하되 각 권역들 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오늘의 우리 음악문화는 그 질과 건강성의 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21세기를 눈 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치 지향적이고 균형잡힌 음악문화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문화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음악인, 음악교육자, 음반 제작 및 방송인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그것을 지표로 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예술성 음악을 외면한채 오락성, 향락성 음악으로 치닫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고 있다. 어느 사회이든 예술성 음악이 위축되고 오락성 음악이 위세를 떨치면, 그 사회는 곧 치유하기 어려운 폐해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러한 폐해로부터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 집단은 청소년층이다. 그러나, 오락성 음악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건강성을 유지하는 한 유익한 사회 문화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문화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일반 청소년들에게 예술성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건강한 오락성 음악을 제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청소년 음악당의 건립 및 운영, 소년소녀합창단 및 합주단의 연주회 지원, 후원가와 같은 생활음악 창작 및 보급 등은 실천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며, 예술의 전당과 교육방송국, 한국청소년단체연합회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청소년을 위한 음악산책"은 성공적인 사례이다. 문화체육부와 교육부가 각별한 관심 속에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고, 행정적 및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해 준다면 그러한 일들은 쉽사리 실현될 수 있다. 특히 문화체육부와 교육부가 방송음악의 질과 내용의 균형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음악인 단체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절실하다. 시, 도립 연주단체를 지역 사회 조직에 소속시키고 음악 애호인 단체들이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일도 21세기를 향한 주요 과제이다. 관 주도의 연주단체는 오래지 않아 활동과 발전에 한계를 보이며, 시민들은 주체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운영 체제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화해야 할 것이다.

예술 음악인들은 오락성 음악과 효용성 음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것이 가치 지향적이 되도록 돕는 한편, 일반 대중을 예술성 음악으로 이끌어 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수만이 예술 음악을 향유하고 대중이 그것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그것은 존재 의의를 상실한다. 예술음악 애호의 저변이 확대될 때 1차적으로 유익한 사람은 바로 예술 음악인 자신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전반에 유익을 준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 음악인들의 희생과 헌신적인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자신은 각고의 노력 끝에 우뚝한 음악가가 되었다라든가 몸을 낮추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쉽게 예술음악에 접근하도록 이끌어야 하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에 성심껏 참여하고 봉사해야 한다.

모든 예술 음악인은 자신이 일반 대중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자각해야 하고, 음악인 단체에 모여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단체는 음악문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한 체제와 필요한 채널을 확보하고, 가치 지향적이고 균형잡힌 음악문화를 건설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 오페라를 공연할 때 무대 위에 번역 가사의 자막을 설치하게 하는 일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몇 년 동안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 어떤 것은 제도화 해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음악인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음악제작자 및 방송인들은 "즐거움"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것은 "선함과 아름다

음, 진실과 정의를 향한 유익한 즐거움”으로 재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 신문의 벽범신 재원 논설위원은 “2천년대는 경제전쟁 시대를 지나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대중이 좋아하고 원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만 메달려서는 문화가 퇴행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춘 제작 및 방송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2천년대 음악문화는 국제적으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제작자 및 방송인들은 일시적인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작업이 스스로의 사회적 역할을 점차 축소시키는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한 자각 위에 만약 그들이 음반제작 및 방송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문화체육부와 교육부, 음악인 단체, 음악교육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심의와 조정을 거친다면,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에 가치 지향적이고 균형잡힌 음악 문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오늘의 한국 음악” 중심의 음악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음악”이라는 낱말을 “서양 음악”을 지칭할 때 쓰면서, 우리의 음악을 “국악”이라 자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음악을 칭할 때에 “음악”이란 어휘를 써야 하고, 서양 음악을 칭할 때에는 “서양 음악”이란 어휘를 써야 하며, 우리 음악을 서양 음악과 대칭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 음악”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어휘의 사용은 인식의 상태를 반영한다. 음악인들이 먼저 그것을 구별해서 써야 일반인들이 음악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며, 음악을 바르게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서양 음악을 수용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구별과 수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도 서양 음악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서양 음악의 아이디어와 예술성, 표현기법이 우리 음악의 발전에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수용, 흡수해야 한다. 문제는, 서양 음악이 우리 사회 음악의 주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인이 우리 음악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21세기에 오늘의 한국 음악이 우리 사회 음악의 주된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찾고,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국악원, 문화체육부와 교육부, 작곡가들과 연주가들, 음반제작자 및 방송인들에 의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국악원은 전통음악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창작, 보급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이제는 연구와 창작 임무를 더 확대해야 한다. 보존과 보급에 힘쓰는 이상으로 전통음악의 근본을 깊이 연구해야 하며, 그에 바탕을 둔 “오늘의 한국음악”을 창작, 보급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을 양성하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다. 전통음악의 관용적 표현법을 정리하고, 한국 음악을 한국 음악답게 하는 요소와 원리를 밝혀 현대의 작곡가와 교육자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 일은 물론 간단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간에 걸친 깊은 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의 음악문화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위한 부설연구소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일들에는 문화체육부와 교육부의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문화체육부는 지금이 미래지향적인 민족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일에 재정을 아껴서는 안될 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문화 전쟁”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옛 음악을 외국인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모르지만, 곧 전통적인 현대의 음악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한 투자는 서두를 수록 좋다.

교육부는 기존의 예술학교를 “한국음악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게 하고, 일반 학교들에서 “전통음악에 바탕을 둔 오늘의 한국 음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치원과 국민학교 저학년에서 “한국음악”을 주된 교재로 사용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국 음악적 정서를 그들의 마음 속에 담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곡가와 연주기들은 스스로 민족 음악문화 창달의 주체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 시대, 이 사회에 고급의 외국 음악과 옛날의 한국 음악만 존재한다면 오늘의 음악인들은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혹 그것이 안일과 안주를 도모하는 탓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음악인 개개인과 음악인 단체가 전통음악에 바탕을 둔 현대의 한국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는 데에 크게 비중을 두는 규약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할 것을 권한다.

음반 제작자와 방송인들이 “오늘의 한국 음악 중심의 음악문화 창달”에 동참한다면, 그들은 작곡가나 연주가의 역할에 못지 않게 이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과 방송이 일반 대중의 음악생활의 성격과 흐름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그것이 민족 음악 문화의 질과 양상에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질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노력은 통일 후의 민족 음악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힘이 될 자료를 축적하게 해 줄 것이다.

3. 예술교육의 실현과 예술 음악인의 육성 및 보호책의 수립을 위하여

일반학교의 음악교육은 본질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요구이다. 음악교육의 본질화

는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통한 예술교육을 뜻한다.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이 음악 행위를 하면서도 내면에 그것의 예술적 표현성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음악교육의 성과는 보잘 것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행위 기능의 지도에 중점을 두는 오늘날의 교육은 음악의 예술적 특징을 체험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질화를 추구하는 현대의 음악교육은 “음악예술의 심미적 체험”과 “학생들의 성장에 따른 그 나름의 예술 체험 양상”에 관한 연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심미의 대상 및 과정(process)과 음악적 감각의 발달 양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사들의 연구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교육부가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교육부는 지식의 교과들을 통한 삶의 세계 추구만으로는 인간교육이 완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음악 교과가 예술 교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예술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준비해야 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를 지원하며,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재교육해야 할 것이다.

음악 영재의 교육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가는 예술가 육성에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만 탄생된다. 특수한 문제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듯이 예술가 육성문제는 예술만큼이나 특수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재능의 조기 발견과 적기(適期)지도는 음악 영재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보통교육 편제와 입학고사들은 그것을 거의 성공할 수 없게 하는 확실한 장애이다.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가 바로 이 영재 교육분야인 것이다.

음악대학은 자유로움과 낭만, 예술적인 진지성과 현대적인 역동성, 진보적인 아이디어로 충만하고, 각기 스스로의 특수한 역할을 창출하도록 허용될 때 창조적인 예술인을 육성할 수 있다. 순수 음악학교와 음악대학을 따로 두되 순수 음악학교는 조기교육의 차원에서 작곡가 및 연주가 육성에 주력하고, 음악대학은 음악 전반의 전문 인력양성 차원에서 작곡 및 연구가를 비롯하여 음악학, 음악사 및 이론, 음악 행정 및 경영, 음악교육, 음악평론, 음악치료, 제작 및 전달 등의 분야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대학의 입학 제도는 음악가로서의 적성과 자질을 가진 사람, 꼭 음악가가 될 사람을 선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력 낭비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대학이나 연구소가 최선의 선발 방법을 장기 기획 연구 과제로 삼는다면 큰 공헌이 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음악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음악계의 광범위한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예컨대,

미국의 Ann Arbor에서는 세계적인 지휘자 또는 관현악단이 초청될 경우에, 반드시 Michigan 음악 대학생들에게 무대 리허설을 참관시키게 하고 있다. 그것은 음악회를 주관하는 Ann Arbor Music Society 와 음악대학의 교육적 배려의 결과이다.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이 음악대학들과 긴밀히 협조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제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배려가 바탕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음악발전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음악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금은 정부의 몫이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 사회 조직들이 직접적인 유익이 실감되지 않는 예술에도 가치를 부여하게 될 때까지는 정부가 그것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가치 지향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지름길은 예술이 존중되는 사회풍토를 만드는 일이며, 그것은 먼저 정부가 음악예술가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럴 때에 기업이나 사회조직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게 되고, 일반 대중이 예술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로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 음악가들에 대한 지나친 우대는 없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음악인들이 피해를 받는 않는지도 검토할 때이다. 예를 들면, 그들이 너무 쉽게 큰 연주료를 받아가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들의 명성이 우리 음악인들의 객석을 비게 하여 우리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도 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연주료의 상당한 비율액이 문예진흥기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방송과 음악 전문지, 신문, 잡지도 우리 음악가들의 예술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들도 사회적으로 음악가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들, 사회 조직들, 일반 대중이 예술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데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의 말 한마디, 글 한줄은 어떤 제도적, 재정적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말과 글로 음악가들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음악문화가 궁극적인 가치를 앞세우고, 미래를 생각하며, 민족을 중심에 놓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IV. 맺는 말

우리는 최근에 국가의 특정한 정책이 대중의 일시적인 기호에 근거하여 결정될 경우에 그것은 오래지 않아 그 대중으로부터 버림받으며, 당장은 그것이 대중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궁극적인 가치에 근거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일 경우에 그것은 곧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경험

적으로 배웠다.

음악문화는 국가의 정책 중에서도 가장 대중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의 기호 충족 지향적이 아닌, 가치 지향적, 미래 지향적, 민족 지향적 음악 문화이어야 한다. 그러한 음악 문화만이 21세기의 우리 민족이 추구하게 될 가치, 인류가 추구하게 될 가치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휴머니즘은 보살핌과 나눔을 통한 공동체적 이상의 실현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보살핌과 나눔의 음악문화를 창건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제 우리 음악인들은 저마다의 가슴에서 개인적 존재의 향상과 행복에만 집착했던 20세기의 휴머니즘을 꺼내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보살핌과 나눔을 통한 공통의 가치와 행복을 지향하는 21세기의 휴머니즘”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음악인들의 힘으로 21세기의 우리의 사회를 밝고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서울: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3.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0.

Mark, Michael,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이홍수 외 공역,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2.